2015 창원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기　　간 : 2015. 3. 7 ~ 3. 14(6박 8일)
- 연수국가 : 영국
- 연 수 단 : 15명(의원 11, 공무원 4)

창 원 시 의 회

(도시건설위원회)

목 차

Ⅰ. 공무국외연수 일반현황 ····· 1
　1 연수목적 ····· 1
　2 연수개요 ····· 1
　3 주요 연수내용 ····· 2
　4 주요 연수일정 ····· 3

Ⅱ. 연수결과 총평 ····· 4

Ⅲ. 연수내용 ····· 5
　1 리버풀 비전 ····· 5
　2 엘드니언 빌리지 ····· 6
　3 알버트 독 ····· 8
　4 나인 엘름스 ····· 9
　5 스콧 모뉴멘트 ····· 12
　6 윈더미어 호수 ····· 13
　7 옥스퍼드 대학교 ····· 15

Ⅳ. 연수소감(제언) ····· 17

【참고자료】 방문국 및 주요 방문도시 현황 ····· 18

Ⅰ. 개 요

1 연수목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건설 분야의 정책 운용실태 연구를 통한 우수 사례 견학과 우리 시 접목 방안 모색

○ 지역 현실에 적합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구상

○ 해외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관광지 운영실태 시찰을 통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창출 방안 모색

○ 지역 내 우수행정사례, 도시재생, 관광 기반 등 현장 견학을 통한 우리 시 접목 방안 모색

2 연수개요

○ 연수기간 : '15. 3. 7(토) ~ 3. 14(토)【6박 8일】

○ 연수국가 : 영국(도시 재생 및 주요 관광 인프라 현황)

○ 연수인원 : 15명

- 의 회(15) : 의원 8명, 전문위원실 3명, 의회담당관실 1명

번호	소 속	직위(급)	성 명	번호	소 속	직위(급)	성 명
1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 장	김 동 수	9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	손 태 화
2	〃	부위원장	노 창 섭	10	〃	〃	이 해 련
3	〃	위 원	방 종 근	11	〃	〃	박 춘 덕
4	〃	〃	이 찬 호	12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서 정 국
5	〃	〃	이 옥 선	13	〃	〃	윤 종 석
6	〃	〃	박 옥 순	14	〃	주무관	이 주 성
7	〃	〃	송 순 호	15	의회담당관실	〃	윤 재 순
8	〃	〃	노 판 식				

3 주요 연수내용

○ 도시재생 사례

- 리버풀 비전 추진 사례
  · 도시 재생 사례 연구
  · 도시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 및 해소 방안 연구
  ·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례 연구
- 리버풀 엘드니언 빌리지 재생 사례
  · 빈곤과 질병이 만연했던 쇠퇴한 주거 단지 재생 사례 연구
  · 도시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 및 해소 방안 연구
  ·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례 연구
- 알버트 독(Albert Dock) 시찰
  · 쇠퇴한 항만시설을 문화시설로 재생시킨 사례 연구
- 나인 엘름스(Nine Elms) 시찰
  · 런던의 새로운 거주 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등 런던지역 시민의 편의와 도시생활을 위한 '나인 엘름스(Nine Elms)' 재개발 지역과 유럽 최대의 슈퍼마켓인 '뉴코벤트가든(New covent garden)마켓'을 시찰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에 반영

○ 관광인프라 및 활성화 사례

- 스콧 모뉴멘트 시찰
  · 위대한 문장가 월터 스콧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관광자원으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인 이원수, 김달진 기념관과의 연계 방안 연구
  · 문학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방안 분석
- 윈더미어 관광시설 시찰
  ·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 지역내 소재한 호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화 방안 발굴

- 옥스퍼드 대학 방문

· 대학과 어우러진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 산업진흥책 모색

·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방안 분석

④ 주요 연수일정

월 일	장 소	교통편	시간	일 정
제2일 3/8 (일)	에딘버러 글래스고	전용차	전일	◉ 현장시찰 : 에딘버러 ▶ 스콧 모뉴멘트, 꽃시계 등 ◉ 현장시찰 : 글래스고 ▶ 글래스고 성당, 시민 궁전, 글래스고 시가지 등
제3일 3/9 (월)	윈더미어	전용차	전일	◉ 현장시찰 : 윈더미어 ▣ 공식방문 : 리버풀 시청 방문 (LIVERPOOL VISION) 브리핑
제4일 3/10 (화)	리버풀	전용차	전일	▣ 공식방문 : 엘드니언 빌리지 (ELDONIAN VILLAGE) 특별시찰 : ALBERT DOCK 시찰
제5일 3/11 (수)	옥스퍼드	전용차	전일	◉ 특별시찰 : 세익스피어 생가 및 거리,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시찰
제6일 3/12 (목)	런던	전용차	09:00	▣ 공식방문 : 나인 엘름스 (NINE ELMS)
제7일 3/13 (금)	런던	BA017	13:00	런던공항 출발

Ⅱ. 연수결과 총평

○ 금번 국외연수는 도시재생 및 관광 인프라 현황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반적인 도시재생 분야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 사례에 대해 파악하였다고 판단되나, 세밀한 분석에는 미흡한 아쉬움이 있었음

○ 금번 국외연수는 도시재생 분야 및 관광 인프라 등의 바람직한 추진 및 활성화방안,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 특히, 도시재생 및 관광 관련 기관 및 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녹아들게 하고 지역 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음

○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국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 및 관광 인프라 방문 등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Ⅲ. 연수내용

[도시재생 사례]

1 리버풀 비전 추진 사례(리버풀 구도심 개발계획 벤치마킹)

○ 착안점

- 리버풀 비전 청취를 통한 도시개발 계획 방안 모색
- 도시개발 계획 분야 비교
-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소통 방안 발굴

○ 시사점

- 영국 리버풀의 도시개발계획과 사례를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도시 운영성 극대화 및 다양화를 위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주택계획의 조화로운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개발계획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례를 알려 주었으며,
- 아울러, 구 시가지에 대한 도심의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도시의 민간주도형 자율적 도시재생 및 주변지역 도시정비, 도심지역 활성화 등 영국의 선진 도시와 비교 검토하여 창원시가 추구하는 더 큰 창원 구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문이었음





2 리버풀 엘드니언 빌리지(Eldonian Village) 재생센터

○ 착안점

- 빈곤과 질병이 만연했던 쇠퇴한 주거 단지 재생 사례 연구
- 도시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 및 해소 방안 연구
-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례 연구

○ 방문 지역 개요

- 엘드니언 빌리지(Eldonian Village)는 리버풀 항구의 항구 기능 쇠퇴와 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예전의 마을을 재생시키고, 기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보기 드문 경우임
- 이로서 이 지역은 1987년 영국에서 커뮤니티기업의 가장 탁월한 사례로 Times /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유엔의 세계 하비타트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영국도시재생협회(British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에 의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재생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음
- 이후 엘드니언 빌리지는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재구조화에 대응하고 있는 다른 지역사회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어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배워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엘드니언 빌리지(Eldonian Village)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마을로 그 조직 구성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커뮤니티 트러스트(Community Trust)'는 자선조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선출된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조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트러스트는 가장 상위의 조직으로 2,500명이 넘는 전체 지역사회를 대표하며, 이 조직은 1987년 마을에서 교육을 향상시키고, 레저와 오락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며,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음

· 둘째, '엘드니언 그룹(Eldonian Group)'은 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경제적 프로젝트와 훈련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포츠센터, 환경관리사업, 가스중앙난방서비스, 단열분야에서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솔(Vauxhall)의 9,000만 파운드 규모의 신규 사업에 개발자 가운데 하나로 참여하고 있음

· 셋째, '지역사회기반 주택협회(Community-Based Housing Association : CBHA)'는 등록된 사회주택사업자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담 가능한 사회주택, 노인케어시설, 도심의 아파트를 구입한 리스홀더들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 영국의 도시재생정책과 사례를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철거 재개발은 문제를 최대한 단순화 시킨 가운데 추진되는 근대적 개발방식으로, 다양한 이해들을 고려하면서 점점 그 추진이 어려워졌고, 이는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경제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쇠퇴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가 집적된 지역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셋째, 지역재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지역사회가 갖도록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은 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3 리버풀 알버트 독(Albert Dock)

○ 방문 목적 : 쇠퇴한 항만시설을 문화시설로 재생시킨 사례 연구

○ 방문 기관 개요

- 알버트 독(Albert Dock)은 리버풀 항구의 부두를 말하는데, 1946년 제시 히틀러라는 사람이 알버트 도크 주면에 다섯 개의 규모가 큰 창고를 지어 부두의 창고건물로 사용하다가 1972년 부두로서의 역할이 없어지자 문을 닫은 채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음
- 이에 당국에서는 이 유휴시설을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개조하자 도크를 둘러싸고 있던 폐쇄된 창고건물들이 갑자기 1등급 건물로 분류되어 복합건물로 복원되었음

- 리버풀 당국에서는 세계적인 록 밴드 '비틀즈(The Beatles)'가 리버풀 출신임을 착안하여 이들 창고건물 중 하나를 '비틀즈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고, 다른 창고는 '테이트 갤러리', '머시사이드 해양박물관', TV스튜디오 등으로 개관함으로써 '알버트 독'은 영국과 리버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부각되었음

○ 시사점

- 한때 제국의 항구로 번성했던 리버풀은 영국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쇠퇴했으나, 이제 '알버트 독'이라는 복합 건물로 변신해 리버풀의 또 다른 얼굴이 되고 있음
- 이처럼 마산만 또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리버풀 사례를 참고하여 마산의 근대문화유산인 이원수, 문신 등 지역 내에 소재한 문화 및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요소까지 추가하여 지역의 문화가 가미된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런던 나인 엘름스(Nine Elms) 재개발 실태

○ 착안점

- 런던의 새로운 거주 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등 런던지역 시민의 편의와 도시생활을 위한 '나인 엘름스(Nine Elms)'재개발 지역과 유럽 최대의 슈퍼마켓인 '뉴코벤트가든(New covent garden)마켓'을 시찰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에 반영하고자 함

○ 방문지역 개요

- 영국의 심장부인 런던에서 약 4km 거리에 위치한 '나인 엘름스(Nine Elms)' 재개발지역은 새로운 거주 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등 런던지역 시민의 편의와 도시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개발 지역임
- '나인 엘름스(Nine Elms)'는 향후 2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18,000 호의 새로운 거주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에서와 같이 오는 2020년까지 8,0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400,000㎡ 이상의 상업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2016년	2020년
3,100호의 주택 완공	8,000호 이상의 주택 완공
70,000㎡ 상업공간 조성	400.000㎡ 이상의 상업공간 조성
재건축 계획 완공	미국 대사관 오픈

- 이 사업이 완공되면 79억 유로(EUR : 약 9,7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과 45억 유로(약 5,500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3배 정도의 직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이 지역 재개발사업은 교육과 건강, 도시서비스 향상에 두고, 직선 주차 공간, 수변공원 개발과 조성, 도로발전 등 공공시설 분야, 지하철과 지상철, 버스라인, 강을 이용

한 교통개발,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리, 보행자 도로와 다리 등 교통수단의 개발과 관리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울러 기술교육 운용체계 개발과 적용, 직장 중개 및 알선, 기업유치와 지원,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등 지역주민의 취업과 비즈니스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 시사점

- 현재 창원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 재개발은 낡은 것은 무조건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음
- 하지만, 낡은 시설 또한 얼마든지 리모델링하여 옛것과 새것이 가미된 시설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나인 엘름스를 통해 새삼 깨달았음
- 나인 엘름스 또한 낡은 화력발전소의 외양을 유지한 채 내부 시설만 새롭게 공사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지역 내 소득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음
- 이처럼 창원 또한 도시 재개발시 무조건 새롭게 짓는 방향을 추구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지역 유산을 지켜가면서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여야 하겠음





[관광인프라 및 활성화 사례]

5 스콧 모뉴멘트(Scott Monument) 시찰

○ 시찰 목적

- 위대한 문장가 '월터 스콧'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관광자원으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인 이원수, 김달진 기념관과의 연계 방안 연구
- 문학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방안 분석

○ 시찰기관 개요

- '스콧 모뉴멘트(Scott Monument)'는 1771년, 수많은 명작을 남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작가 '월터 스콧(Walter Scott)'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1884년에 세워진 탑으로 높이 약 60m임
- '스콧 모뉴멘트'는 시간이 경과되어 그을음으로 완전히 색이 바랬지만, 탑에 설치된 정교한 조각들은 훌륭하기 이를 데 없으며, 안쪽에 입구가 있어 탑 위까지 오르는 약 300개의 계단이 있음

○ 시사점

- 스콧 모뉴멘트의 경우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작가 '월터 스콧'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탑으로 현재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우리 시의 경우 이원수 및 김달진 문학관이 있으나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유치원은 물론 초·중등학교에서 이원수와 김달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라

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시의 위대한 문학 유산인 이원수와 김달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 먼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이원수 및 김달진 문학관을 찾아 올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 아울러,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로 군항제 및 국화축제 시기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학제를 개최하여 시상품으로 이원수와 김달진의 책을 선물로 주어 관광객들이 이원수와 김달진의 문학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그 들의 문학관을 찾아 올수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음




6 윈더미어(Windermere) 호수 체험

❍ 시찰 목적

-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 도시브랜드 정책, 관광정책 홍보마케팅 분야 비교
- 지역 내에 소재한 호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화 방안 발굴

❍ 시찰지역 개요

- 윈더미어(Windermere)호수에는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를 필두로 샬럿 브론티,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 같은

많은 예술가의 향취가 깊게 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휴양지이며, 더욱이 윈더미어(Windermere)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작은 마을들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농촌문화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웰빙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음

- 여느 마을과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새로 지은 집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모든 건축물이 그림엽서에서 보듯 아름답다는 사실임

  · 이는 주민들이 새 건물을 짓는 대신 옛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바, 우선 이 고장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발상지라는 것, 다른 하나는 방문객에게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19세기 영국의 여유를 주기 위한 배려에서 추진된 정책에 의한 것임

❍ 시사점

- 윈더미어 호수에는 많은 예술가의 향취가 깊게 배여있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휴양지이다. 윈더미어 호수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도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가 있어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남저수지는 현재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남저수지에 철새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이원수, 김달진이라는 문학 브랜드를 더 추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남저수지를 찾아온다면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방문

○ 시찰 목적

- 대학과 어우러진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 산업진흥책 모색
-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방안 분석

○ 시찰 기관 개요

-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도시인 옥스퍼드가 있는데, 학문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약 1만 2천 명의 학생이 36개의 칼리지에서 학문에 몰두하고 있음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는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 등의 과학자와 25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한 명문 대학으로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헬리 혜성을 발견한 헬리도 이 곳 출신임
- 옥스퍼드에 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초엽으로 1167년 파리대학교에서 영국 학생들의 입학을 불허하자 12세기말에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파리대학교를 모델로 하여 처음에는 신학부·법학부·의학부·교양학부가 개설되었음
- 초기에는 대학건물이 없어 교회나 홀을 빌려서 강의를 했으며, 1249년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최초로 세워졌고, 1263년경 베일리얼 칼리지가, 1264년에 머튼 칼리지가 세워졌음
- 옥스퍼드대학교 내에는 보들리언 도서관과 애슈몰린 미술고고학 박물관이 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1478)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대학 출판사에 속함
- 영국 역사상 옥스퍼드대학교 출신의 위인들로는 존 웨슬리에서부터 카디널 울시, 오스카 와일드, 리처드 버턴 경, 세실 로즈, 월터 롤리 경 등이 있으며, 이 대학에서 공부한 영국 총리들로는 대(大)윌리엄 피트, 조지 캐닝, 로버트 필 경, 윌리엄 글래드스톤, 로드 샐리스버리, H. H. 애스퀴드, 클레멘트 애틀리, 앤소니 이든, 해럴드 맥밀런, 에드워드 하트, 해럴드 윌슨 경, 마거릿 대처 등이 있음




Ⅳ. 연수소감(제언)

○ 이번 연수 목적은 기계 산업 경기 악화와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 슬럼화와 공동화에 대비하여 선진 도시를 비교 견학하여 우리시 행정과 의회 운영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임

○ 유럽 선진도시의 사례를 보듯이 주민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쇠퇴 원인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등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도시 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 도시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창원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느꼈음

○ 아울러, 관광 인프라 및 활성화 사례 등을 견학함으로써 새롭게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에 관광객들이 더 기억하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스토리를 추가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에 반영해야 함

참고자료

방문국(영국) 및 주요 방문 도시 현황[1)]

기 본 현 황

○ 국　　명 :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ish and Northern Ireland
○ 수　　도 : 런던 (London)
○ 인　　구 : 약 63,047천명 (2012년)
- 백인(92.1%), 흑인(2%), 인도인(1.8%), 파키스탄인(1.3%), 혼혈(1.2%), 기타(1.6%)

○ 면　　적 : 244천㎢(한반도의 약 1.2배)
○ 언　　어 : 영어(공용어), 웨일즈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 종　　교 : 성공회 50%, 로마가톨릭교 11%, 개신교 및 기타 39%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의회정치제
○ 국가원수 : Her Majesty Queen Elizabeth Ⅱ (1962년생)
○ 총　　리 : David Cameron (1966년생)
○ G D P : 2조 8,476억 달러 (2014년)
○ 1인당 GDP : 38,591달러 (2012년)
○ 화폐단위 : 파운드(£)
○ 산업구조 : 1차 산업 1%, 2차 산업 25.6%, 3차 산업 73.4%
○ 교역규모
- 수출 : 56억 달러(2010년)
- 수입 : 33억 달러(2010년)

○ 재외교민 : 약 30,000명(약 25,000명이 런던 거주)

1)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영국 관광청, KOTRA

역 사

○ 로마의 지배 및 잉글랜드의 통일

- BC 6C경 북부 유럽에서 Celt족이 침입하여 처음으로 영국에 정착
- BC 55년 Julius Caesar의 침입 이후 AD 4C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음
- 449년 Jutes, Angles, Saxons가 침입하여 Celt족을 Wales, Scotland 지방으로 몰아내고 Wessex, Kent, Mercia 등 7개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828년 Wessex왕 Egbert가 England 지방에 통일왕국을 수립함
- 1066년 프랑스 Normandy 공국(바이킹국가)의 Duke William of Normandy에 의한 England 정복으로 Norman 왕조가 수립되어 England를 지배하기 시작
- 1338년 Edward Ⅱ의 프랑스 왕위 요구로 발발한 영·불 백년전쟁(1338~1453)에서 영국이 패배하여 프랑스 영토를 상실하였고, 그 이후 얼마되지 않아 1461년 Edward Ⅳ의 즉위로 York 왕조가 시작
- 1534년 Tudor 왕조의 Henry Ⅷ가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발표하여 로마교회로부터 독립된 국교회(Church of England)를 창립하면서 영국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그후 Stuart, Hanover 왕조를 거쳐 현재의 Windsor 왕조에 이르고 있음

○ 웨일즈의 통합

- 5세기 Anglo-Saxon족에게 쫓긴 Celt인들이 정착하면서 역사가 시작된 Wales는 12세기 중반 Henry II의 원정, 13세기말 Edward I의 지배를 거치면서 점차 잉글랜드와 가까워져 감. 1485년 Tudor 왕조를 연 Henry Ⅶ가 웨일즈 출신이었기 때문에 1485년 이후 England와의 통합을 크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1535년 Act of Union에 따라 정치적으로 England에 완전 통합됨.

○ 스코틀랜드의 통합

- Scotland는 1603년 Scotland왕 James Stuart(James Ⅵ)가 England 왕(James Ⅰ)에 취임함으로써 영국 왕실에 통합되었음(이때부터 England, Wales 및 Scotland를 합쳐서 Great Britain으로 부르게 됨).

그러나 양국의회는 1707년에야 통합되었으며 Scotland는 계속해서 독자적인 법률체제와 교회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아일랜드 지배 및 독립

- Ireland는 1169년 England왕 Henry Ⅱ에 의해 정복된 바 있으나 지리적, 종교적 이유로 England의 직접통치가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여 반란이 빈번했으며, 1607년 북부 Ulster 지방 중심의 반란이 종결된 후 Scotland 및 England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이 시작됨
- 1801년에는 Great Britain과 Ireland 두 의회의 통합으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가 탄생함
- 1916년 아일랜드 독립운동(Nationalist Uprising)이 진압된 후 Irish Republican Army(IRA)가 결성되어 독립전쟁을 개시하여 1921년에는 북부 Ulster 지방의 6개주만 British Parliament의 최고권위하에서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영국의 일원으로 남고, 나머지 3개주 및 남부 Ireland가 독립하여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을 구성하였으며,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함
- 1928년 이후 영국 국호는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북아일랜드

- 1921년 독자적인 의회 구성이후 다수파인 신교에 비해 카톨릭 교도들이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표명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 이후 가톨릭 파들은 적극적인 대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
- 1970년 가톨릭 극렬 세력이 이에 대항하여 Official IRA에서 분리, 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라는 테러단체를 조직하여 폭력에 의한 북아일랜드 독립을 추진함
- 1972년에 이르러 영국정부가 사태수습을 위해서 북아일랜드 직접 통치가 시작됨
- 1998년 4월 10일 Belfast에서 Blair 총리 및 아일랜드의 Ahern 총리의 신·구교계 제 정파대표간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유혈분쟁 종결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마련

- 2006년 10월 신·구교계 정파간 권력공유를 골자로 하는 St. Andrew 합의가 도출되면서 자치정부 복원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 3월 자치의회 선거를 거쳐 같은 해 5월 신·구교계간의 공동정부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이루게 됨.

정 치 제 도

○ 내각제도

- 영국의 내각 제도는 1945년 이래 급격히 변화

·1945년 이전 내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 협의를 하는 국정의 최고 사령탑 역할

·1차 대전 중 내각의 임무 확대에 따라 사무국, 위원회의 활용 관행이 개시되었음 (사무국, 위원회는 국방, 외교 등 문제에 대한 내각의 협의를 보조하는 역할)

- 내각 system화 및 위원회의 일반화

·2차 대전 중 및 그 이후 내각의 역할은 전시 동원, 전후 복구, 경제 운용, 복지 국가 도입 등에 따른 임무 확대에 따라 그 성격이 급격히 변화함. 또한 부처의 수가 증가하고,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부처간 협조,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됨

·내각회의 참석 각료의 수가 약 2배(약 24명)증가함에 따라 장관들은 타 부처 업무에 관심을 갖고 관여할 여력이 줄었으며 복잡해 진 내각의 기능을 보조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됨 [애틀리 내각 (1945-51)의 위원회 수는 471개에 달했고 처칠(1951-56) 내각의 위원회는 246개였음]

·즉, 2차 대전을 계기로 영국 정부는 내각이 아닌 내각제도(cabinet system)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함

·유관 부처가 입장 협의, 조정을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가 사실상 정책결정을 내리고 내각은 이를 추인하는 관행이 정착

- 내각 system의 변화 방향

·영국 내각제도는 총리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따라 그 규모와 위상이 달라지나, 대체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영국의 내각 제도는 불문 헌법, 헌법적 관행(constitutional convention)에 기초하고 있으나, 운영방식 및 내용면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총리는 내각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기하는 권한도 보유하는 바, 총리의 성향에 따라 정부 운영 방식에 변화의 여지가 큼

- 영국 내각 제도의 특성

·단일성(unitariness) : 다당제를 특성으로 하는 유럽에 비해 확립된 양당제도를 갖춘 영국의 내각은 다수당 1당이 주도함

·연대성(collegiality) :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영국 내각은 구성원이 연대 행동을 하며 일부 각료들이 다른 각료들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내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

·공동 책임성(collective responsibility) : 내각의 결정, 내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원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짐

·의회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to the parliament) : 입법, 행정권의 분리가 불명확하고 각료는 하원 혹은 상원 의원 중에서 임명됨에도 불구하고 각료들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에 출석하여 정부의 입장과 담당 부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개진하는 데 정치 생명이 달려 있을 만큼 대 의회에 대한 책임성에 중요성을 둠

·당의 非 중요성(unimportance of the party) : 원내당은 backbencher를 통해 어느 정도 내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중앙당이 내각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임

○ 영국의 부처

- 부처의 정책 입안 자율성 보장

·영국의 장관은 부처 운영에 있어 독립된 자율성을 가지며 이러한 독립성은 내각의 연대성에 의해 보완됨

- 각료급 인재의 양성과 기용

·총리, 재무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등 핵심 각료를 제외한 영국 각료의 평균 재임 기간은 2~3년임

·정치인과 직업 공무원은 상호 교류가 적으며 상호 분업이 명확함(공무원 출신 정치인은 별로 없음)

- 특별 보좌관 제도(special advisor)

·대처 정부(보수당) 시절부터 장관이 특별 보좌관을 외부에서 충원하여 재임기간 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는 관행이 도입됨

○ 내각 사무처(cabinet secretariat)

- 내각사무처는 내각 및 내각의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부처간 정책 조율을 담당함. 또한 문서 회람 및 배포, 토의 내용의 기록과 내각 결정 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목표로 함
- 내각사무처는 의사 결정에까지 책임을 지며 결정 사항의 실천을 담당 부처에 일임. (감독권 부재)
- 내각사무처는 국방, 외교 담당, 경제 및 국내 정책 담당, 유럽 정책 담당으로 구성

○ 총리 비서실

-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 총리의 연설문 작성, 일정 관리, 타 부처 비서실과의 연계를 통해 수상의 촉수 역할을 하나 규모가 작고 자체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음

○ 총리 정책실(policy unit)

- 1974년 Wilson 총리가 신설한 부서로써 총리에게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총리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범부처간 업무조율을 담당함.
- 약 12명으로 충원되며 경우에 따라 정부부처 공무원이 일부 정책실 요원으로 충원되는 경우도 있음
- 대처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주요 정책입안과정에서 policy units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 선거 제도

- 하원의원의 임기 : 5년 (1911 Parliament act 에 의거)

·실제 관행상 임기는 3~4, 5년이 보통이며, 과거 2차대전시 전시 내각(war cabinet)의 사례에서와 같이 임기 연장도 가능함

- 총선 실시 결정

·총리가 총선 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함

·이론적으로는 여왕이 총리의 의회 해산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나 여왕은 총리의 권고를 수락하는 것이 관행임.

·선거제도는 소선거구(single-member constituency),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first past the post system)로 운영됨

- 총선 후보 공천 과정

·공천 신청 → 지구당의 short list 작성 → 공개 경쟁을 통한 후보자 확정의 단계를 거침

·보수당은 공천 후보자는 중앙당 공식 후보 명단에 포함된 인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함(공천 후보자가 중앙당 공식 후보 명단 포함 신청을 하면 중앙당이 심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명단에 포함 여부 결정)

·노동당의 경우, 공천 신청은 지구당내 당 지회 (ward)나 노동조합 지회 등 단체의 지명을 받은 인사만 가능함

·short list에 오른 지원자들은 후보자 선정 대회에 초청되어 연설, 질의, 응답 session 등을 거친 후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공천됨. (보수, 노동당 공통 절차)

·즉, 영국의 공천 과정은 중앙당이 공식 후보 명단을 유지하며, 지구당에 중앙당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단계에서 지구당 선출 공천자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하기는 하나 지구당의 공천 자율 권한이 존중되는 편이며 노동당의 경우 더욱 그러함.
보수당의 경우 지구당내 공천 신청자들의 short list 작성 전 단계에서 미리 중앙당이 공식 후보자로서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지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더 큰 편임
그러나 보수당의 경우도 지구당이 중앙당 공식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 중앙당에 인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당의

공천 과정상 자율권이 존중됨

○ 각 당의 특징

- 보수당

·1679 년 이래 Tory 당으로 알려짐("Tory" 는 Irish로 산적), 1832년 Reform Act 이래 보수당으로 명명 (Disraeli 수상 배출)

·원내당, 지역구, 중앙당으로 구성

·전당 대회는 National Conservative Convention

·당수의 선출 : 1997년 당헌 개정을 통해 당수 선출 제도 확립(원내당이 2명을 선출, 2명에 대한 전체 보수당원 투표로 당수 결정)

·원내 의원 15% 이상의 동의로 당수에 대한 경선을 통한 도전이 가능 (1990년 대처 사임을 유발한 당내 쿠데타의 배경)

- 노동당

·1900년 창당, 노동 조합, Fabian Society 등 사회민주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 자유당을 대신한 제1야당으로 존재를 점차 확립

·1924년 총선에서 최초 집권

·당수는 노동 조합, 지역구 대표, 원내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거에서 선출(1981년 개정 당헌)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당의 지도부 역할 (당수, 부당수, 노동당 서기장, 내각 대표 3명, 유럽 의회의 노동당 대표, 의원 및 유럽의회내 노동당 3명, 지구당 대표 6명, 노동조합 대표 12명, 지방의회 의원 2명, 사회주의 연합 단체 및 청년 대표 각 1명, 노동당 재정 담당 등으로 구성)

·1995년 당헌의 Clause 4 (생산 수단의 국유화 강령)을 포기 : New Labour, 제3의 길을 표방

- 자유 민주당

·1679년 이래 Whig 당으로 알려짐

·빅토리아 여왕 시대(19세기 중반 이후)를 풍미한 정당 (Palmerston, Gladstone 수상 배출)

·1988년 노동당에서 분당한 Social Democrat와 합당, 자유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비례 대표제의 도입을 통한 중흥을 기도하고 있으나 아직 제3당의 지위를 탈피치 못하고 있음.

교 육 제 도

○ 교육과정

- 초·중등 교육

·초등교육은 5~1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은 11~1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임(11년간)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이전의 유아교육도 초등학교에 부설된 reception class 또는 공·사립 유치원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

·초·중등교육은 공·사립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립학교 학생비율은 7% 정도이며, Sixth Form의 경우 25%에 달함

·중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Sixth Form School에서, 직업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여타 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 2~3년간 공부를 함

·Sixth Form School 이수 후 치르는 시험은 GCE A-level로 대학입학시험에 해당함

·영국 전체로 170대학교에서 약 230만명의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44% 정도임

- 대학 교육

·England : 132개 대학에 192만명(이중 대학원생은 41만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며, 모든 대학이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HEFCE)을 통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Scotland : 20개 대학에 20만명(이중 대학원생은 4만6천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며, 모든 대학이 Scottish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HEFC)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Wales : 14개 대학에 13만명(이중 대학원생은 2만3천여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며, 모든 대학이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HEFCW)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Northern Ireland : 4개 대학에 5만명(이중 대학원생은 1만2천여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2개 대학 The Queens University of Belfast와 University of Ulster 대학이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Northern Ireland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 교육재정

- 초·중등교육은 무상이며(사립학교 제외), 대학교육도 과거에는 무상으로 시행되었으나, 1998년부터 학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현재 학비는 3000 파운드 수준임. 현재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1만 8천 파운드 미만인 학생의 경우 학비 전액을 면제 받으나 2008년 9월부터 부모의 연간 소득이 2만 5천 파운드 미만인 경우 등록금은 면제
- 영주권자로서 학년 시작일 현재 3년 이상 영국에서 부모가 거주하고 3년 이상 수학한 외국인의 경우 영국인에 준하는 학비를 부담

사 회 문 화

○ 종교

- 역사적 배경

·AD 1세기~5세기까지 로마에 의한 통치기간 중에 기독교(가톨릭)가 도입되어 국교로서 숭배되었으나, 16세기 Henry 8세에 의해 성공회가 수립된 후 England를 중심으로 영국 각지 및 세계 각국에 보급됨

·스코틀랜드 지방에는 신교가 일찍부터 도입되어 스코틀랜드 국교로 인정받고 있음

- 교회 종류

1) The Anglican Church of England(성공회)

·16세기 Henry 8세에 의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영국 및 전 세계 160여개국에 44개의 자치구역을 두고 있고, 총신자수는 8천만명으로 추산됨

2) The Church of Scotland

·장로교의 일종으로서 1707년의 스코틀랜드 통합조약에 따라 스코틀랜드 국교로서 인정됨 (총 성인 신자수 : 60만명)

3) The Free Churches

·국교로서 확립되지 아니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지방의 신교들을 통칭하며, 이중 38만명의 성인신자를 가진 감리 교회가 가장 큼

·침례교회연합 : 16만명, ·개신교회연합 : 10만명, ·구세군 : 5만명

4) The Roman Catholic Church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16세기에 성공회가 수립됨으로써 가톨릭교가 사라졌다가 1850년에 소생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서도 17세기초에 사라졌다가 1878년에 소생됨

5) 유태교

·유태인들은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7만명에 이르고 있음

6) 기 타

·160만명의 이슬람교도(1,000개 회교사원)와 상당수의 힌두교(56만명) 및 시크교도(34만명)가 있으며, 소수의 불교도도 존재함

○ 사회보장제도

- 발전과정

1) 복지국가 개념과 사회보장제도

·과거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400여년전인 1601년 빈민법(Poor Law)을 제정,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천명함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골격이 완성 되었는 바

1970년대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영국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정착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제도

·19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자유 경제"와 "강한 국가"를 표방했으며, 이는 곧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비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감세의 형태로 나타남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공공지출 삭감과 재정적자의 해소를 추구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구함

3)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정책

·노동당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본 사상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으로서 '기회의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함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 Scheme)' 정책은 "정부는 개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에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개인에게는 더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는 「이해 관계자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함

- 분야별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복지제도 즉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료서비스(NHS)」,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및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의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짐

1) 국민의료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은 전국민(6개월 이상 거주외국인 포함)에게 무료로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1948년 「국민의료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를 도입

2) 사회서비스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주거서비스, 주간보호, 재택서비스 및 각종 사회사업 서비스를 포함하며, 지역사회 당국과 보건, 복지부분의 각종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긴밀한 연계를 이루면서 제공

3)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국민연금보험 : 기여급여, 즉 현재의 "국민연금보험"은 1992년 개정된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 Act"에 의하여, 피용자에게 "노령연금", "실업급여"(Jobseekers Allowance), "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 "미망인 급여" 및 "출산수당" 등을 지급함

·빈곤급여(Means Test Benefits) : 실제로 소득 등 경제능력을 조사하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국가부조를 의미함

·비기여급여(Non-Contributory Benefits) : 장애급여, 아동급여, 산재급여, 전쟁유가족 급여 등이 있으며, 일반조세로부터 재원을 조달함

에딘버러(Edinburgh)

○ 면적 260㎢, 인구 453,670명(2004년 기준)의 도시로 영국 스코틀랜드 로디언 주에 있는 행정구이자 도시이며,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스코틀랜드 남동부에 있으며 포스 만(灣)의 남쪽 해안 가까이에 있으며, 12세기에 에든버러 성을 중심으로 생겼고, 지금은 올드타운으로 알려져 있고, 스코틀랜드 지방의 문화·교육·일체감의 중심지임.

○ 북유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공업도시이며, 주요산업은 식품·청량음료·담배 제조업, 선박 수리와 선박공학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전자공학, 전기제품 제조업, 제지·인쇄·출판업 등이 있음.

○ 스코틀랜드에서 의료·법률·금융·보험·관광 등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리스 항구를 통하여 곡물·식품·목재 등을 수입하며, 석탄·위스키·철·강철 등을 수출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으로 의학부와 법학부가 유명한 에든버러대학교(1583년 건립)와 헤리엇와트대학교·에든버러예술대학·스코틀랜드 신그리스도교대학 등이 있으며,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스코틀랜드 왕립박물관도 있음.

○ 월터 스콧 경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1768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초판이 이곳에서 발행되었으며, 국제적인 연례 예술축제에는 연극·무용·음

악·시각예술 전시회가 함께 열리고 있음.

윈더미어(Windermere)

○ 윈더미어(Windermere)호수에는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를 필두로 샬럿 브론티,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 같은 많은 예술가의 향취가 깊게 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휴양지이며, 더욱이 윈더미어(Windermere)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작은 마을들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농촌문화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웰빙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음.

○ 영국 중서부에 자리 잡은 호수지역은 윈더미어를 중심으로 반경 50km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호수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마을이 10여 곳 있으며, 그중 관문 노릇을 하는 곳이 유일하게 기차가 닿는 윈더미어 마을임.

○ 기차역이 있는 언덕에서 호수로 이어지는 신작로를 따라 걷다 보면 여느 마을과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새로 지은 집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모든 건축물이 그림엽서에서 보듯 아름답다는 사실임.

- 이는 주민들이 새 건물을 짓는 대신 옛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바, 우선 이 고장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발상지라는 것, 다른 하나는 방문객에게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19세기 영국의 여유를 주기 위한 배려에서 추진된 정책에 의한 것임.

리 버 풀(Liverpool)

○ 인구 439,473명 (2001년 기준)의 도시로 영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항구도시로 머지사이드 도시권의 핵심지역이며, 머지 강 오른쪽(북쪽)을 둘러싸고 불규칙한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해에서 수㎞ 떨어져 있음.

○ 1207년은 리버풀 역사상 중요한 시기로, 이 해에 잉글랜드 존 왕이 칙허를 내려 이곳에 세워진 계획된 신도시를 특권도시로 승인해주었음.

○ 1715년 리버풀 최초의 부두가 세워졌고, 18세기말까지 머지 강을 따라 부두 4개를 더 건설함으로써, 항구의 부두 면적에 있어서는 런던보다 앞섰으며, 1830년 잉글랜드 최초로 두 주요도시를 잇는 리버풀-맨체스터 철도가 개통되었음.

○ 그 이후 영국의 모든 주요 공업중심지로 쉽고 값싸게 갈 수 있는 철도망과 머지 강을 가로질러 리버풀과 위럴을 잇는 증기선항로가 개설되었고, 이곳이 발전함에 따라 주위의 여러 지역과 아일랜드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1845~48년 아일랜드 기근과 그 이후에 두드러졌음.

○ 이곳은 지금도 주위의 대도시권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운송·통신·유통·선박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은 쇠퇴했으나, 아직도 도시의 경제생활에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

○ 18세기 때 지은 시청을 비롯해 19세기 세인트조지 회관, 1904년 착공되어 1978년 완공된 신(新) 고딕 양식의 성공회 성당, 현대식으로 설계한 로마 가톨릭 메트로폴리탄 성당(1967)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기관으로는 머지사이드 주립박물관, 도서관, 워커 미술관, 픽턴 도서관, 리버풀대학교(1881 승인)가 있음.

옥스퍼드(Oxford)

○ 인구 134,248명(2001년 기준)의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 주에 있는 행정구와 도시로 옥스퍼드대학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아이시스라 부르는 템스 강 상류와 처웰 강 사이에 있으며, 이 두 강의 합류점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 이곳은 고딕 양식 탑들과 첨탑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솟아 있어 뾰족탑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탑 대부분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

래된 옥스퍼드대학교에 속해 있는데, 이 대학교 건물은 대부분 15~17세기에 세워졌으며, 초창기에는 유니버시티 칼리지(1249년)·베일리얼(1263년)·머턴(1264년) 등이 있었음.

○ 옥스퍼드대학교 각각의 칼리지에는 2~3개의 4각형 안뜰을 중심으로 예배당·강당·도서관·벽을 두른 정원이 있고, 12세기 후반 이 대학교가 설립된 후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시장도시였으나, 13세기 이래 그 기능에 있어서 전보다 덜 중요해졌음.

○ 18세기에 이곳을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과 연결해 주는 운하망이 개발되었으며, 1835년에 런던-브리스틀 대서부 철도가 개통되었고, 1801년에는 약 1만 2,000여 명의 주민이 살던 작은 시장도시로 생계를 대부분 대학에 의존하였음.

○ 20세기 초에는 인쇄·출판업이 확고히 기반을 굳혔으며 잼, 특히 마멀레이드 제조업도 활발해졌으며, 1901년에는 주민수가 약 5만 여명에 달했음.

○ 윌리엄 모리스(후에 너필드 경)는 이 시의 외곽에 있는 카울리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출발하여 잉글랜드 산업계의 거물로 성장했는데, 자동차 산업은 중장비, 전기 엔지니어링과 함께 오늘날 이 지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런　　던(London)

○ 런던(London)은 영국의 수도로 잉글랜드 남동부 템스강(江) 하구에서부터 약 60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570㎢, 인구 817만명(2012년)의 도시로 영국의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연방의 사실상의 중심도시이며, 뉴욕·상하이·도쿄와 더불어 세계 최대 도시의 하나임.

○ 1888년 런던주(州)가 설치되었고, 1899년 시티오브런던을 제외한 지역을 28개의 행정구로 구분하여 런던 주청(州廳)이 통할하였으나, 런던 경시청(스코틀랜드 야드)은 주변의 여러 주에 미치는 수도경찰관구를 관할하였으며, 1963년 런던 행정법에 의해서 1965년 런던 주청이 폐쇄되고, 대신 시티오브런던을 포함한 32개의 행정구로 구성된 그레이터런던 주청이 설치되었음.

○ 그레이터런던은 들쭉날쭉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센트럴런던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6분의1 정도를 차지함.

○ 센트럴런던은 보통 런던시로 부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센트럴런던에 포함되고 있으며,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매년 점점 더 많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편임.

○ 런던에서는 빌딩보다 일반주택 건설이 더 활발한데, 초기에는 대부분 단독 세대를 위한 주택들로 지어졌으나, 최근에는 1층 혹은 2층짜리 다세대용 아파트로 개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공한지가 많은 편이며, 템스 강은 런던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연속되는 휴식공간임.